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66조원 규모 '전북 대도약' 본격 시동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
현대차 새만금 투자 계기
SOC·AI 등 4대 분야
57개 핵심 프로젝트 도출
정책 사업화 기반 구축 등
3단계 실행 로드맵 제시



국제 유가 급등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증가 배럴당 91.9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76% 상승한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국제유가 선물 자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66조원 규모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산업 지형 대전환에 나섰다. (관련사진 3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도출된 66조원 규모의 핵심사업을 반드시 실현해 전북의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SOC, 새만금 기반, AI·에너지, 농생명 등 4대 전략 분야 57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전북을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발전 전략이 국가 정책 의제로 공식 격상됐다. 당시 4개 중앙부처가 전북 발전 과제를 동시에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이후 각 부처 자료를 분석해 총 57개 핵심사업을 도출했다. 중장기적으로 약 57조원 규모 국가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분야별로 보면 SOC 분야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과 전주권 광역 교통망 확충,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전북 전역을 '1시간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만금 분야에서는 산업용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AI 수소시티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새만금을 첨단 전략산업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AI·에너지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실증 랩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소 산업과 해상풍력 연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 거점을 구축한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새만금 헴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전북을 K-푸드 세계화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민간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 지역에 수소에너지·AI 데이터센터·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약 9조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전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가 이에 호응해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새만금·전북 대혁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부처를 단장으로 하는 현대차 투자지원 공무원 전담제를 도입했다.

로봇, 재생에너지,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등 6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범정부 TF 대응과 투자자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로봇 실증 특구 지정, 피지컬 AI 산업 육성, 수소 생산 촉진 지역 지정,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총 41개 특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전북도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단계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책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국가 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에 집중한다. 이후 2027년부터는 핵심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AX 대학원 AI 부트캠프, SW 중심 대학, 인공지능 고등학교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미래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타운홀미팅으로 확인된 정부의 의지와 현대차 투자가 맞물리면서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꿀 실질적 동력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도민의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후백제 도성 종광대 보존 여건 마련됐다

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지 선정
NH 우선 매입...전주시, 향후 분할상환 재매입

후백제 도성 유적이 잠든 전주 종광대 토지를 전주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은덕 국토부장관



우범기 전주시장

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우선 조합이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출받은 사업비의 만기가 이달 말 도래함에 따라, '문화유산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폐지되는 만큼 사업비에 대한 손실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종광대 일원 후백제 도성 부지는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게 되며 시는 향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를 재매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는 한편, 시 재정 부담도 분산할 수 있게 됐다.

종광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18년간 사업이 추진되어 온 지역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관련 도성이 확인되면서 매장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됐고,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도 지정 유산 면적은 3만2,43㎡에 달한다.

이후 시는 종광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검토해 왔으나, 대규모 토지보상비를 일시에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 및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 가운데 도 지정 문화유산이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되

다. '문화유산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폐지되는 만큼 사업비에 대한 손실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NH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선매입하는 기간 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시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보존·정비 사업으로 발전시켜 종광대 일원을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은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도 지정 문화유산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 공공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자부심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민주, 오늘 순창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북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발표사업 현장 체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 길에 위치한 발표사업 현장인 1층 연회장에서 전

북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되며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등으로 모두 발언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

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황명선·강득구·이성운·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또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권항엽 조직부총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부실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의원, 박희승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민결로, 현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사업현장진행현황 직접접에서 민생 현장 체험 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산업과 경제 상황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고창

구시포 쌍둥이등대

고창군 GOCHANG COUNTY